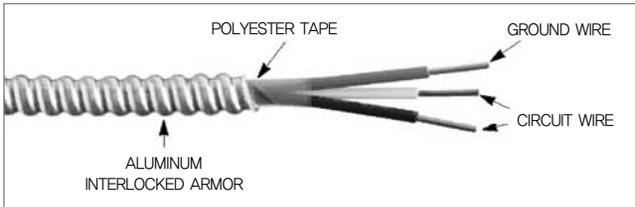


GAON

혁신과 도전정신으로 미래를 창조하는 기업

1947년 국내 최초의 전선업체인 국제전선으로 출발한 가온전선(주)(대표이사 구자엽)은 설립 이후 2010년까지 연속 흑자 기록을 이어온 초우량 기업이다. 국내 중·저압 전선시장의 최강자로 평가받고 있는 가온전선은 지난해 거래처의 부도와 구리 등 원자재 가격 변동 영향으로 창사 이래 첫 적자를 기록하는 수난을 겪었다.

하지만 올 상반기 매출 5807억7486만 원, 영업이익 161억9729만 원, 당기순이익 98억8717만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각각 11.8%, 222.4% 증가했다. 특히, 순이익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52억3169만 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는 확고한 입지의 전선 사업을 바탕으로 불황에도 휘둘리지 않는 강인함을 보여준 결과이다.



ACF케이블

가온전선의 주요 생산품은 전력선과 통신선이다. 1957년 3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폴리염화비닐(PVC) 전선 및 통신 케이블을 생산했다. 이후 국내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전력 수요가 늘고 통신망 건설도 확대되면서 전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전력부문

- 환경친화형 무독성 난연 케이블
- 난착설형 가공전선
- 고기능성 케이블(방서용, 방충용, 수밀형, 고내열성)
- SSLT(Stainless Steel Lose Tube) Type OPGW(광복합 가공지선)
- 광전력 복합 케이블
- 고속철도용 고차폐 제어 케이블(ZC03)
- 고 유연성 엘리베이터 케이블

통신부문

- Low Water Peak Fiber
- UTP케이블(Cat. 5E, Cat. 6, Cat. 7)
- Hytrel Tube
- 광부품

재료부문

- 친환경 전용선 재료(Eco material, Halogen-free 난연 컴파운드)
- 방서용 컴파운드
- 수가교용 난연 XLPE
- 고 유연성 PVC 컴파운드
- 도체수밀 컴파운드



당시만 해도 '전선을 만들기만 하면 팔린다'고 할 정도로 전선 산업은 초호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가온전선은 수요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공장을 지어 시장을 선점했다. 올 상반기 중저압 전력선 부문에서는 시장 점유율 40%가량을 차지하며 1위에 올랐다.

신규사업 안착

가온전선은 신규 사업 강화와 새로운 영업이익 창출에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ACF(배관배선일체형)케이블 기반의 SWS(Smart Wiring System) 등 신규 사업의 성장세가 주목을 받고 있다. 시공비와 공사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ACF 시스템은 신개념의 배선시스템으로 손색이 없다.

배선절약형으로 설계돼 공간 활용도가 높고 별도의 접지공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시공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입선과정의 절연손상, 결선작업에서 발생 하는 전선 이탈, 접촉 불량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원천 차단했으며, 건물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자재 없이 재사용이 가능해 친환경적이다.

국내 통합배선시스템 시장은 앞으로 500억 원 이상의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돼 가온전선의 ACF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내 전선 사업이 어느 정도 성숙해져 언젠가는 성장세가 주춤해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시작한 대표적인 신규 사업이 바로 내장재 사업이다. 지난 2007년 전주공장에 자동차 실내 천장용 내장재와 건축용 흡음 내장재 생산 공장을 지었다. 특히, 자동차용 내장재는 미국 제너럴모터스(GM)를 비롯한 미국 빅3 자동차회사에 납품할 정도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내장재가 폴리에스테르 소재로 친환경적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가온전선은 거래 중소기업과의 상생 경영에도 앞장서고 있다. 가온전선은 LS전선 등과 함께 하도급 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을 50~100%로 높여 중소기업과의 상생과 공정 거래를 도모하고 있다.

연구개발

가온전선은 1986년 기술연구소를 설립, 우수한 연구 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세계 유수의 선도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장기간 축적해온 '고기능 재료기술' 과 '전력 및 통신케이블의 개발 Know-How' 를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만족할 수 있는 고기능·고품질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구개발 활동은 사회적 이슈인 '환경친화, 고성능화, 초고속 정보통신' 등에 집중 하고 있다. 이에 따른 결실로 고품질 친환경 재료의 개발을 통해 저독난연 케이블의 환경표지인증 및 초고속 정보통신용 케이블인 UTP Cat.6의 UL인증을 취득하였으며, 다양한 고기능성 케이블을 연구·개발해 나가고 있다. KEA



주요 연혁

2007년 전주공장 친환경 신소재 생산	1990년 KCR LINE(연속주조압연 설비) 준공(세계 두 번째)
2006년 군포공장 무산소동(OFC) 생산	1988년 전주공장(통신케이블) 준공
2004년 가온전선 상호 변경	1986년 기술연구소 설립
2001년 TRAY용 난연케이블 전기용품 안전인증 취득 및 생산	1976년 7월 XLPE 전력 케이블 생산
2000년 UTP케이블 생산 개발	1973년 군포공장(전력사업부) 준공
1993년 수출 5000만 불 탑 수상, HSCR(SHAFT) 준공	1947년 국제전선 창립(국내 최초의 전선회사)